

# 위성곤 “2공항 건설 노력했고, 반드시 필요”

###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공식석상서 건설추진 첫 언급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활동 속 민주당내 소통 ‘주목’

위성곤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공식석상에서 제2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 의원은 30일 서귀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민주평통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문화 한마당’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본인은 제2공항 추진 및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참석자들에 따르면 위 의원은 또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강충룡 도의회 부의장에 대해서도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

명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제2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서귀포를 지역구로 하는 위 의원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도내 정치권 및 지역사회는 제2공항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더구나 도의회의 행보와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게 돼 소통 부재 등 당내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를 구성하며 정부의 건설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의회 제2



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지난 28일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에게 특위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와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편성 등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발언에 대해 찬반 양측이 서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논란이 커진 상태에서 위 의원의 발언이 보태져 향후 정국 전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특별하게 발언한 것은 아니다.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공항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와함께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 “절차적인 문제제기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게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선용기자 sycho@ihalla.com

## 한라산 구상나무 49만본 중 18만본 고사

### 제주자치도세계유산본부 구상나무 지리정보화 완료 정상부 중심으로 고사 많아

멸종 위기에 놓인 한라산 구상나무의 지리정보화(GIS) 작업이 마무리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전역의 구상나무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누적 고사율은 36.43%, 평균밀도는 4.48개체/100㎡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고사율은 구상나무 분포지 외곽부와 한라산 정상부,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높게 나타났다.

화장비'를 활용해 한라산 일대 55.08㎢의 영역에 분포하는 수고 1m 이상의 구상나무를 생목과 사목으로 구분, 위치를 도면화했다.

분석 결과 3600㎡당 36개체 이상의 구상나무가 분포하는 면적은 11.07㎢였다. 이 면적 내에는 구상나무 49만6775개체(생목 31만5145개체·사목 18만630개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누적 고사율은 36.43%, 평균밀도는 4.48개체/100㎡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고사율은 구상나무 분포지 외곽부와 한라산 정상부,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높게 나타났다. 송은범기자

## 중단 중국기업 개발사업 기간 연장

### 지난달 29일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서 결정

중국 기업들이 제주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기간 연장’을 허락 받았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도청 자연마루에서 회의를 열고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와 육인제주 관광단지, 중문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먼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서 추진되는 백통신원 제주리조트는 ‘사업규모 축소 또는 향후 구체적인 자본조달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백통신원은 472실 규모의 콘도와 휴양·문화시설, 생태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192실 규모의 콘도만 준공했을 뿐 나머지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진행

되는 육인제주 관광단지 역시 ‘신용평가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이달 말까지 제출 한다’는 조건으로 사업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받았다.

이 사업도 콘도 골조공사가 실시되다 2017년 6월 30일 중단, 현재까지 멈춰선 상황이다.

두 사업 모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부동산 개발을 제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 밖에도 관광공사가 1978년부터 추진한 중문 유원지 개발사업은 중문 관광단지 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초안을 2020년 8월까지 제주도에 제출하고, 같은해 10월 말까지는 제주도와 협의한 변경안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송은범기자

## 시설공단 조례안 ‘제동’

>>1면에서 계속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도 “제주도가 2018년도를 기점으로 급하게 시설공단을 추진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며 “제주도가 좋지 않은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드는 업무를 시설공단으로 몰아넣고, 시설공단의 예산도 공단채로 발행, 재정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설공단을 급하게 추진할 마음은 없다”면서도 “전직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공단에서 신규 채용하는 만큼 제주도 공무원 정원을 축소시키면 될 일”이라고 답했다.

시설공단 조례가 심사보류되면서 내년 7월 출범을 준비하던 제주도의 계획은 어긋나게 됐다. 다만 12월중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에 안건이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여 제주도는 이 임시회에서 사활을 걸 전망이다.

시설공단은 ▷하수·위생처리시설 ▷환경시설(매립장·재활용 등) ▷공영버스 ▷주차시설 등 4개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인력은 총 1105명(정원 902명, 정원 외 203명)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차 주시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



지난달 28-29일 사전 접수 및 현장 등록을 통해 선발된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주 최초 일반인 대상 자율주행차량 시승행사에 참여한 시승자들이 자율주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제주 최초 자율주행차량 시승행사 ‘성황’

### 28-29일 자율주행버스 시승 도민 등 200여명 참여 ‘목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제주 최초로 일반인 대상 자율주행차량 시승행사인 ‘JDC 자율주행 선발대’를 개최했다.

‘JDC 자율주행 선발대’는 사전 접수 및 현장 등록으로 200여명이 시승하며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JDC는 (주)NDM과 협업으로 자율주행차량 기술의 실증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시승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JDC 엘리트빌딩 정문과 제주대학교 정문 구간을 30분 간격으로 운행했다. 내리막길과 회전교차로 등 난관이 많은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테스트 운행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운행해 눈길을 끌었다.

일반인 시승행사 외에도 사전 테스트 운행 중인 자율주행 차량의 사진을 찍고 ‘#JDC자율주행’ 해시태그를 SNS에 업로드하는 ‘해시태그 이벤트’가 진행됐다.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교류를 위해 마련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향후 자율주행차 실증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육성을 지원하고, 제주도민들이 4차 산업혁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용기자

## 제주 농작업 안전장비 보급 ‘효과’

### 재해비용 42→10%대로 급감

제주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성산읍 고품질노지감귤연구회에서 진행한 ‘안전관리 시범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 감귤연구회 소속 12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 컨설팅 및 안전장비 23종·130개를 보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쇄기 투입구 이중 커버, 레버 후진시 시동 잠금, 이물질 립 안전 보호막, 배터리 커버가 설치됐다. 또한 허리·어깨보호대를 보급해 퇴비 또는 비료 살포 등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부상을 줄이도록 했다.

가구당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재해비용이 42.1%에서 10.6%로 감소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도 94%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송은범기자

### 제주4·3대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4·3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 군법회의 희생자 재심사건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나?

### 도민여러분을 모십니다

제주지방법원은 4·3재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70년 넘도록 4·3수형인들을 옥죄었던 전과기록도 말소되었습니다. 8월 22일 제주지방법원은 18명의 4·3수형생존인들에게 형사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4·3은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3해결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도민과 유족 여러분을 모십니다. 부디 참석하여 4·3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2시 / 제주시 하니크라운호텔 별관**

제1부 보고회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 보고자 - 김영란 4·3조사연구원
제2부 토론회	사회 고창훈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주제 - 군법회의 희생자 재심사건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나? - 발제 임재성 4·3군법회의 재심사건 변호인 토론 김동현 박사·문학평론 박찬식 전 4·3연구소장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2019년 12월 1일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시 남성로 26길 4(3층) 전화755-4343 팩스755-4348

## 2019 제2회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One Point Workshop

### 제주바다자치는 어려운가? - 시행방안에 대하여

일시 : 2019. 12. 6(금) 개회 15:00 ~ 폐회 18:00 장소 : 매종글래드제주호텔 2층 제이도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변해역의 고갈되어가는 어족자원을 회복하고 자원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풍요로운 어장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주제의 후속으로 한 가지 현안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원포인트워크숍(One point workshop)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 김석중 | 공동이사장 강문수·한용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 좌남수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 김석중 010-3698-3411  
공동이사장 한용선 010-9687-6605  
공동이사장 강문수 010-4115-3019  
사무국장 김상현 010-3693-91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 좌남수 010-3694-1001  
정책자문위원 김준택 010-3697-3963

시간	내용
15:00-15:20	개회사 김석중(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
	축사 오영훈 국회의원
	축사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
15:20-16:20	제1발제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연안어업 보호를 위한 연근해수역 구분 방안
	제2발제 이광남 한국해양정책학회 해양정책연구소장 - 조업구역 조정을 위한 단계별 세부 실천 방향
16:20-16:30	휴식 및 정나정리
16:30-18:00	패널 및 종합토론 청중과의 소통 - 질의 응답
	좌장 이영직 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패널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김경택 제주대학교 해양산업정책학과 교수 좌민석 제주연구원 연구원
18:00-	폐회 개별토론 및 만찬

**| 주최 |**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 후원 |** Jeju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수협조합협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